

# 다친 경찰·소방관, 맞춤 재활치료로 일터 복귀 돕는다

근로복지공, 전국 직영병원 8곳

산재노동자는 물론 재해공무원에 진료비 부담없이 재활서비스 제공 재해공무원 17명 복귀·재활 치료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경찰, 소방관 등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공단 직영병원의 선진 재활치료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현장업무에 복귀시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문적 재활 인프라를 갖춘 공단 직영병원은 산재노동자 뿐만 아니라 재해공무원도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 직영병원은 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



공단병원 재활전문센터 모습.

원, 태백병원, 동해병원 등 전국에 총 8곳이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올해 1월 말에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으로 전문재활치료비용을 공무상 특수요양비로 급여화해 재해공무원이 진료비 걱정 없이 공단 직영병원의 개인별 맞춤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재해공무원 5명이 공단 직영병원의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직장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12명이 치료를 받으며 업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 5월에 주택화재 진압 중 사다리에 다리가 끼인 채로 뒤로 넘어져 오른쪽 다리에 전방십

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병으로 수술을 했지만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시 소방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A씨는 신체 기능의 회복을 위한 전문재활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단 대구병원에 내원해 전문기능평가를 거쳐 전신치료 풀(Pool), 복합운동치료, 근골격계 집단재활프로그램, 도수 치료 등 개인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보조기를 차고 보행이 가능해졌으며 다시 소방현장에 복귀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경찰관 B씨도 2017년 11월에 야간 순찰 중 교통사고로 요추 1번 골절 상해를 입고, 치료 중에 경찰업무 복귀에 대한 걱정을 하던 중 공단 순천병원의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다.

경찰 업무에 필요한 작업능력이 무엇이고, 현재 작업능력은 얼마나 되는지의

학적 평가결과에 맞춰 무중력 보행훈련기, 척추 심부근 및 균형능력강화 시스템 등 최첨단 전문재활치료 장비를 활용한 일대일 맞춤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3개월간 제공받고, 현재 다시 경찰서에 복귀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장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 등을 지원할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인천공항공사, 메르스 예방·방역조치 강화

위기 경보 ‘관심’→‘주의’로 상향 중동궤 항공편 별도 게이트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메르스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공항내 예방대책과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위기경보 상향 발령으로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중동발 항공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중동발 항공편 지정 게이트 3곳을 별도 운영 중이다.

지정 게이트에는 검역장비가 갖춰진

탑승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역관으로부터 발열과 이상증상 유무 등을 확인받은 뒤 입국하고 있다.

또 공항 내 다중 여객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다중 여객 이용 시설(입국심사대, 화장실, 유아휴게실 등)과 여객들이 직접 접촉하는 주요 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카트 등)에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안검색 요원 등 대고객 직접 인원에 대해서는 근무 투입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는 근무에서 배제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교류로 성공모델 발굴

국토부-LH 우수사례 견학·교류회 그린리모델링 알리고 민간 확산 기대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6~7일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견학 및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

10일 LH에 따르면 이번 교류회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의 실천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물 가치(Building Value) 향상 활동을 말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6일~7일 개최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견학 및 기술 교류회’에서 강동철 LH 도시건축사업단장(첫째 줄 왼쪽 여덟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H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및 효율성 향상, 온실가스배출 감축, 건물 구조 안정성 확보 등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 부분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연계해 도시재생

뉴딜 지역 내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과 그린리모델링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시재생지역내 방치된 노후 건축물인 충주 성내동 우체국의 경우 지난해 설계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성능이 향상된 패시브 기술을 접목한 문화·창업재생 허브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안전보건공단, 공정한 산재예방 실천 나서

‘인권경영헌장’ 선포

안전보건공단은 10일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 경영을 통한 누구나 차별 없는 공정한 산재예방서비스 실천을 결의했다.

공단은 인권경영헌장에 노동자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과 산업안전을 위한 노력 등 9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올해 공단은 인권경영규칙을 제정 및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을 위한 인권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등 인권경영 실행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입직원들이 지난 8월 30일 충남아산 소재 캠코인재개발원에서 나눔 봉사활동으로 캠코브러리에 전달할 학습용 DIY 가구를 제작하고 있다. /캠코

## 캠코 신입사원 ‘가구 나눔활동’으로 첫 업무

학습용 가구 직접 제작해 기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8월 말 채용된 신입직원 44명이 학습용 가구 45점을 직접 제작해 캠코가 설치·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캠코브러리’ 9곳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캠코가 신입직원들에게 나눔 실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신입직원

입문교육과정에 편성해 추진됐다.

문창용 사장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신입직원의 첫 업무를 나눔 활동으로 정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천 취업지원센터 인천으로 이전·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일 부천에 위치한 취업지원센터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명칭도 ‘취업지원 인천센터’로 변경·운영하기로 했다.

센터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13층이다.

이번에 취업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보다 더 많이 인근 지역의 건설근로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업 및 퇴직공제민원 서비스까지도 포함한 ‘One-Stop’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취업지원 인천센터는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무료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1회 정기적으로 무료 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건설기능훈련 안내 등 고용관련 민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11일 (화)  
음력 : 8월 2일

수도권 날씨  
**27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10 | 해질 / 18:47

연천 12/25, 동두천 13/27, 가평 11/24, 파주 12/26, 서울 16/27, 양평 13/26, 인천 18/26, 수원 16/25, 용인 16/25, 평택 15/26, 백령도 17/2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